

독후 활동지

리스토파트의 봄

프리데리케 슈타일 글·그림 | 엄혜숙 옮김



마음 이해하기 1

동물원에 있는 빌리와 리스토파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눌지 그림을 보고 상상해서 써 보아요.



숲으로 돌아온 리스토파트가 강에서 물고기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그림을 보고 상상해서 써 보아요.



정원사 빌리는 곰에게 ‘리스토파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떨어진 가을 나뭇잎”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름 지어 주기 2

동물원 밖으로 나간 리스토파트에게 새 이름을 지어 준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
까요? 새 이름을 지어 준 이유도 써 보아요.



눈바람이 그친 아침, 리스토파트는 오두막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리스토파트의 발자국이 동굴로 이어져 있어요. 리스토파트는 왜 동굴로 갔을
까요?



다시 동물원으로 돌아온 정원사 빌리가 하마 사육장 앞에서 있어요.



얼마 뒤, 하마가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동물원의 동물들은 이미 그곳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린 동물만이 야생으로 나갈 수 있고,
사람을 꺼릴 수 있고, 먹이를 잡을 수 있고, 적을 피할 수 있어요.

헬무트 페츨라너(세계자연기금WWF 명예 회장, 전 쾰른 동물원 원장)

동물원을 최대한 그 동물들이 살던 곳과 비슷하게 만들고,
그 동물들이 살던 방식으로 살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동물권을 지켜 주는 일이겠지요.

엄혜숙(아동문학 평론가)



**떨어진 나뭇잎처럼 생명을 잃어 가는 동물원의 곰 리스토파트를
다시 살아 숨 쉬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